

## 한국수화 단일어의 기호학적 특성\*

남기현\*\*

나사렛대학교 강사

---

---

### 《요약》

---

---

본 논문의 목적은 한국수화의 단일어의 분석을 통해 한국수화 기호의 특성을 기호학적으로 밝히는 데 있다. 수화는 지시하는 대상체를 모방하거나 혹은 대상체를 직접 지시하는 도상적인 단어의 비율이 높기 때문에 기호와 지시체 간의 자의적 관계가 특징인 음성언어 중심의 기준만으로 설명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 따라서 자연언어는 물론 여타의 기호 체계를 분석할 수 있는 기호학적 이론에 근거하여 고찰하는 것이 필요한데, 이때 퍼스의 분류법은 한국수화 기호를 설명력 있게 분류하고 해석하도록 하는 좋은 도구가 된다. 퍼스의 기호 분류법으로 한국수화의 단일어를 분석했을 때, 단일어 중에서 도상 기호와 지표 기호를 합친 비율과 상징 기호의 비율은 각각 전체의 50%를 차지하였다. 이 결과는 외국의 선행 연구들과 일치하며, 수화에서 도상 기호가 높은 비율을 차지하는 것은 시각언어의 일반적인 특징임을 시사해 준다.

---

---

주제어 : 한국수화, 도상, 지표, 상징

## 1. 서론

한국수화는 음성-청각적 음성언어와 구별되는 체스처-시각적 언어이다. 따라서 기호의 구성 방법과 원리 측면에서 볼 때, 수화는 지시하는 대상의 형태 혹은 움직임의 모방하거나 대상을 직접 지시하는 도상적이고 지표적인 단어의 비율이 상당히 높다. 또한 현재의 단어가 그 의미를 유추할 수 있는 형태를 잃어 버렸다 하더라도 어원적으로는 도상성을 기초로 한 단어가 상당하다. 그러나 현재까지 한국수화에서 단어에 대한 기호학적인 검토는 이루어진 적이 거의 없었다. 일부 논의에서 한국수

---

\* 본고는 남기현(2012)의 박사논문의 일부를 수정·보완한 것임.

\*\* 교신저자(chironam@hanmail.net)

화 기호의 구성법을 볼 수 있었으나 단어의 도상적인 특징은 간접적으로 언급될 뿐이었다(김승국, 1983; 김철관, 1998; 장진권, 1995). 게다가 도상적인 기호가 한국 수화 전체에서 얼마만큼의 비율을 차지하는지, 기호가 도상적이라면 구체적으로 어떤 형태를 띠고 있는지 등 세부적인 연구는 전무하다고 할 수 있다. 수화 기호가 가지는 높은 도상성을 고려할 때, 언어 기호와 지시체 간의 자의적 관계를 주요 특징으로 하는 음성언어 중심의 연구 방법만을 사용하는 것은 한계가 있다. 따라서 음성언어 중심의 기준을 수화 연구에 적용할 때 생기는 이론적 설명력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언어 기호는 물론 여타의 기호 체계를 분석할 수 있는 기호학적 이론이 요구된다. 소쉬르에게 있어 기호는 지시대상과 아무런 관계가 없는 독립적인 체계인데 반해, 퍼스는 지시대상과 맺는 상관관계에 따라 기호를 분류하였다.

본고의 목적은 기호와 지시체 간의 관계에 따라 지표, 도상, 상징으로 분류한 퍼스의 기호 분류법을 통해 한국수화 단일어를 분석하고 그 기호학적인 특징을 밝히는데 있다. 본 연구의 결과는 수화에서 도상 기호의 비율을 제시한 각국 수화연구에 한국수화의 결과를 제공함으로써 시각언어의 보편적인 유형적 특성을 밝히는데 기여할 것이다. 뿐만 아니라 한국수화 단일어가 도상 기호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시간이 흐르면서 상징 기호로 생성되고 변형되는 역동적인 경향을 보여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 II. 퍼스의 기호 분류

수화 기호의 지표적이고 도상적인 특징을 설명하기 위해서는 기호와 지시체의 관계에서 기호를 분류한 퍼스(Charles Sanders Peirce: 1839-1914)의 분류법이 필요하다. 퍼스가 말하는 기호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김성도, 2006: 41).

하나의 기호 또는 표상체는 누군가에게 일정한 관계나 어떤 명목 아래 다른 것을 대신하는 그 무엇이다, 그것은 누군가에게 호소한다, 다시 말해, 이 사람의 정신 속에서 동등한 가치를 갖는 기호 또는 더 발달된 기호를 만들어낸다, 그가 창조하는 기호를 나는 첫 번째 기호의 해석체라고 부른다, 이 기호는 다른 무엇, 그것의 대상체를 대신한다, 이 기호는 모든 관계 아래서 이 대상체를 대신하는 것이 아니라, 일종의 관념에 대한 참조를 통해 대신한다, 나는 이 관념을 표상체의 토대라고 불렀다.

표상체(representamen)는 대상체(object)를 외시하는 기호이고, 대상체는 개념이든 사물이든 하나의 기호로 코드화될 수 있는 모든 것을 의미한다. 해석체(interpretant)는 기호의 코드를 해독하거나 해석하면서 획득되는 의미이다. 따라서 하나의 기호이기 위해서는 대상체라고 불리는 다른 무엇을 표상해야만 한다(김성도, 2006: 138). 즉, 기호는 어떤 사람에게 어떤 대상체를 표상하기 때문에 삼원적 관계를 이룬다. 기호는 그것이 대상체와 맺는 관계에 따라 지표(index), 도상(icon), 상징(symbol)으로 나뉜다(김성도, 2006: 45).

도상 기호는 기호의 현존적 성격들이 대상체와 유사하다면 그것은 그 수단을 통해서 그 대상체와의 상관관계를 설정하고 그 기호는 도상이라고 불린다. 만약, 다른 한편, 기호의 현존적 성격이 그 대상체와 근접한 것이며, 그런 방식으로 대상체와 상관관계를 맺는다면, 그 기호는 지표라고 불린다. 끝으로, 만약 그 기호가 주로 기호의 계약적인 성격을 통해서 대상체와 상관관계를 맺는다면, 그 기호는 상징이 된다.

상징은 언어 기호가 그 대표적인 예가 될 수 있다. 기호와 기호가 의미하는 대상체는 관습을 통해 서로 연결된다. 예를 들어, 우리가 ‘나무’라고 부르는 단어는 실제 나무와 아무런 관련이 없고 단지 언어 공동체의 관습에 의해 그렇게 부르도록 정한 것이다. 이로써 각국의 언어가 ‘나무’를 저마다 다르게 부르게 된다. 지표는 인과관계 혹은 인접성으로 맺어지는 기호이다. 가령 어떤 사물 혹은 사람을 가리키는 손가락은 지표이다. 또 연기는 누군가에게 불의 존재를, 땅 위의 발자국은 누군가가 지나간 흔적을 나타내는데, 이때 연기와 발자국은 지표 기호이다.

### III. 한국수화 단일어의 분석

본고에서 한국수화 단일어를 퍼스의 기호 분류에 따라 분석하고 도상, 지표, 상징적인 기호의 비율을 제시하고자 하는데, 이때의 가장 큰 어려움은 연구자 개인의 판단에 따라 해당 단어를 도상적으로 볼 것인지 아니면 비도상적으로 볼 것인지 다양할 수 있다는 점이다(Zeshan, 2000: 52).

#### 1. 분석 방법

본고에서는 한국수화 단일어를 분석할 때 연구자의 주관적인 판단을 최대한 배제

하기 위해 단어의 어원을 분석의 기초로 삼았다. 「한국수화 어원사전」, 「한국수화 어원연구」의 어원과 「한국수화사전」의 단어 동작 설명을 참고하였고 단어의 설명을 제시할 때 별도의 인용표시를 하지 않았다.

### 1) 분석 대상

본고는 「한국수화사전」(이하 사전)의 수화 단어들을 분석의 대상으로 삼았다. 분석의 범위와 세부 사항은 다음과 같다.

첫째, 본고에서는 2,674개의 단일어만을 대상으로 분석을 하였다. 합성어는 둘 이상의 단일어로 구성되므로 동일 단일어가 중복될 수 있기 때문에 제외하였다.

둘째, 순차적으로 결합된 합성어는 제외하였지만 동시적으로 결합된 합성어는 분석에 포함시켰다. 가령 {화산}은 {산/폭발}로 구성되는데, 한 손은 산을 다른 한 손은 폭발을 나타내며 양손으로 동시에 산출된다. 이러한 구조는 단일어에서도 흔히 볼 수 있다.

셋째, 사전에는 동일 단어가 다른 표제어로 반복적으로 등재되어 있는데, 동일 단어의 반복을 피하기 위해 하나의 표제어로 정리하였다. 가령 {가까스로}는 {다행}, {간신히}, {겨우}, {요행}, {천만다행이다}, {천만다행} 등의 여러 표제어로 반복적으로 등재되어 있다. 이러한 경우 {가까스로} 한 번만 다루었다.

표기에 대해 말하자면, 본고에서는 사전의 표기법을 따라 단어를 적었으나 분석 과정에서 약간의 수정을 하였다. 수정을 가한 첫 번째 경우는 동음이의어이다. 가령 {그리다<sup>1</sup>}와 {그리다<sup>2</sup>}는 동음이의어로서 전자는 ‘사랑하는 마음으로 간절히 생각하다’이고 후자는 ‘연필, 붓 따위로 어떤 사물의 모양을 선이나 색으로 나타내다’이다. 동음이의어는 단어에 표기된 위 첨자 숫자로 구분하였다. 수정을 가한 두 번째 경우는 하나의 단어에 수화 동작이 여럿인 경우이다. {남대문}은 두 개의 동작을 가지는데, {남대문①}은 ‘남대문 전차역의 대기 장소를 나타내는’ 동작이고, {남대문②}는 ‘지문자 ㄴ+추녀허리를 구성하는 동작’이다. 이들은 원 숫자로 구분하였다.

김승국(1983)과 김칠관(1998)이 제시한 한국수화 단어의 조어법을 퍼스의 기호 분류로 본다면, 지사(指事)와 지시(指示)는 지표 기호에 해당한다. 그러나 지시 기호로 제시된 {지식}은 어원에 따르면 머리에 들임을 나타내는 동작으로 머릿속을 채우는 것이므로 엄밀한 의미에서 지식을 지시한다고 보기 어렵다. 마찬가지로 {교사}는 모방 기호로 분류했지만 어원에 따르면, 나란히 인접한 선형을 형상화하여 수장을 상징화함으로써 제복의 선생을 연상하는 것으로서 모방과는 관련이 없다. 따라서 보다 정확하고 객관적인 기준에 따라 한국수화의 단어를 분류하는 것이 필요하며, 이를 통해 한국수화 기호의 특징을 이끌어 내어야 할 것이다.

2) 분석 기준

본고에서는 한국수화 단일어를 퍼스의 분류에 따라 지표 기호, 도상 기호, 상징 기호로 분류하였고, 여기에 지표-상징 기호, 도상-상징 기호를 추가하였다. 분류의 기준에 대한 설명은 다음과 같다.

첫째, 지표 기호는 대상체와의 근접성에 의해 대상체를 표상하는 것이다. 본고에서는 지표 기호의 지시어적이고 지시체적인 특성인 근접성에 따라 분류하였다(김성도, 2006: 46). 예를 들어, 한국수화에서 {눈}은 ‘눈을 가리키는 동작’으로 수화자의 검지로 자신의 신체를 직접 지시하는데, 이러한 기호는 지표 기호로 분류된다.

둘째, 도상 기호는 대상체와의 유사성에 의해 대상체를 표상하는 것이다. 단일어 중에는 사물의 형태나 사람의 행동을 모방한 경우가 있다. 가령 {집}은 양손을 펴서 비스듬히 세워 중지 끝을 맞대어 지붕의 삼각형 모양을 모방한다. 이 단어는 명백하게 집과 닮았기 때문에 유사성에 근거하여 도상 기호로 분류되고, {가렵다} 역시 ‘몸을 긁는 동작’으로 행동을 모방했기 때문에 도상 기호로 분류된다.

셋째, 상징 기호는 계약적·타성적 또는 법칙적인 관계를 통하여 대상체를 표상한다. 상징 기호는 아래와 같이 몇 가지 하위 기준이 있는데, 이에 따라 분류를 시도하였다((1)-(3)):

(1) 한국수화에서 {겪다}는 ‘음식을 목으로 넘겨보았음을 나타내는 동작’으로 지금의 형태로는 그 의미를 예측할 수 없다. 이처럼 수화는 만들어질 당시 형태가 의미를 반영하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그 형태는 사라지게 된다. 즉 형태가 변하여 더 이상 의미와 관련되지 않는 단어들이다.

(2) {간단하다}는 ‘특정한 전제가 없다는 것을 형상화한 것으로 수고가 없다는 것을 상징화한 것이다.’ 이 단어를 구성하는 두 단어를 살펴보면, {수고}는 ‘팔을 두드리는 동작’이고 {없다<sup>4</sup>}는 ‘돈을 날리는 것’이다. 두 단어가 하나의 단어로 합쳐질 때, {수고}에서는 수위를, {없다<sup>4</sup>}에서는 수형과 내부 수동을 가져왔다(그림 1). 이 단어의 어원을 알기 전까지는 그 의미를 예측할 수 없다. 즉 이 단어는 사물의 형태나 행동을 모방한 것이 아니라, 이미 존재하는 두 단어가 합쳐져 의미가 응축된 형태로서 상징 기호로 분류했다.



<그림 1> a. {수고} b. {없다<sup>4</sup>} c. {간단하다}

(3) 지숫자와 한글, 영어, 한자 지문자를 포함한 단어들도 상징 기호로 분류하였다. 사전에 있는 국가명은 영어의 첫 철자를 이용하여 만들어진 경우가 상당하다. 외국 수화의 단어를 직접 가져온 경우가 많아서 한국 농인들에게 생소한 단어가 많다. 따라서 국가명 단일어를 분석에 모두 포함시키는 것은 전체 기호 유형 비율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5명의 농인들에게 국가명과 그림을 함께 제시하여 아는 단어인지 물어 본 후 5명 중에서 2명 이상이 안다고 답한 단어들만 분석에 포함시켰다.

넷째, 지표-상징 기호는 본고에서 추가된 것이다. 일부 단어는 지표, 도상, 상징으로 분류하기 어렵다. 가령 {여러 가지}는 처음 만들어질 당시에는 '이것저것을 차례로 가리키는 동작'으로서 지표 기호에 해당하였다. 어원을 알고서 볼 때는 단어가 완전히 상징적이라고 보기 어렵지만 지금은 개별 지시체를 지시하는 것이 아니라 굳어진 형태로서 한둘 이상의 수효를 가진 종류들을 언급한다. 따라서 이 단어는 지표 기호에서 상징 기호로 이동한 것으로 지표-상징 기호로 분류하였다.

다섯째, 도상-상징 기호 역시 본고에서 추가한 것이다. 가령 {가시} 혹은 {뽀족하다}는 '낱알을 따라 그리는 동작'으로 가시의 형태를 모방한 것이다. 그러나 이 단어는 {날카롭다} 혹은 {예민하다}로도 사용된다. 어떤 단어가 먼저 만들어졌는지는 알 수 없지만 보다 구체적인 {가시}에서 출발하여 가시의 뽀족한 성질이 날카로운 성격을 표현하는 {예민하다}로 발전했을 가능성이 그 반대의 경우보다 더 클 것으로 보인다. 이 단어는 도상 기호에서 상징 기호로 이동한 것으로 보아 도상-상징 기호로 분류될 수 있다. {가시}와 {예민하다}처럼 하나의 단어가 여러 표제어로 사용될 경우, 둘을 분리하여 분석하지 않고 둘 중 하나의 단어라도 도상-상징 기호의 성격을 띠다면 도상-상징 기호로 분류하였다. 도상 기호와 도상-상징 기호의 차이는 전자는 형태가 의미와 직접적으로 연결되지만 후자는 그렇지 않다는 것이다. 즉 도상적인 형태를 띠는 해도 단어의 의미와 직접적인 연결이 없는 것은 도상-상징 기호로 분류했다.

## 2. 분석 결과

본 절에서는 앞서 제시한 기준에 따라 한국수화 단일어를 지표 기호, 도상 기호, 상징 기호와 이들의 복합형인 지표-상징 기호, 도상-상징 기호로 분류한 결과를 제시하도록 하겠다.

### 1) 지표 기호

#### ① 신체어

한국수화에서 지표 기호는 대부분 신체 명칭에서 나타났다. 형태는 한 손 검지 혹은 편 손의 손바닥을 해당 신체에 대는 지적하기로 주로 나타나지만 특정 단어는 한 손 검지로 신체의 윤곽을 따라 그리거나 한 손 검지와 엄지로 해당 신체 부위를 잡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표 기호는 수화자가 항상 이용할 수 있는 수화자의 신체를 그 토대(base)로 삼고 있다(Mandel, 1977). 한국수화에서 {겨드랑이}는 가장 보편적인 지표 기호의 예로서, 검지로 해당 신체 부위를 지적하여 나타낸다. {얼굴}은 얼굴의 윤곽을 그리는 동작이다. {머리카락}은 검지와 엄지로 머리카락을 집는 동작으로 나타낸다(그림 2). 한국수화에서 신체어는 검지로 신체 기관을 지적하거나 혹은 검지로 신체의 윤곽을 그리면서 신체를 지시한다. 이때 수화자의 손이 지시하는 신체 기관은 내용이고 손 자체가 지표 기호라고 할 수 있다. 신체어가 반드시 지표 기호로 구성되는 것은 아니다. 본고에서는 지면 관계상 모두 제시할 수 없으므로 남기현(2012)의 [부록 4]에서 단일어 목록을 참고할 수 있다.



<그림 2> a. {겨드랑이} b. {얼굴} c. {머리카락}

## ② 인칭대명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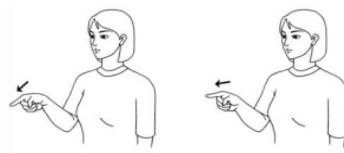
한국수화에서 사람을 가리키는 인칭대명사는 지표 기호로 나타낸다. {너}는 바로 앞 상대를 지시하는 동작으로 나타낸다. {여러분}은 주위를 두루 가리키는 동작으로서, 복수의 의미를 표현하기 위해 한손을 펴서 수화 공간에서 수평으로 원을 그린다. 한국수화에서 {그<sup>1</sup>}와 {그녀}는 여성과 남성을 나타내는 수형, 즉 한손 엄지와 소지만 편 손을 다른 손의 검지로 지시하여 나타낸다(그림 3).



<그림 3> a. {너} b. {여러분} c. {그<sup>1</sup>}

③ 지시대명사

사물이나 장소, 방향 따위를 가리키는 지시대명사도 역시 지표 기호로 나타낸다. {여기}는 바로 앞쪽을 가리키는 동작으로, {저것}은 앞을 가리키는 동작이다(그림 4).



<그림 4> a. {여기} b. {저것}

④ 방향 단어

방향을 나타내는 단어는 {방향}, {앞으로}, {향하다} 등이 있다. {향하다}는 나갈 방향을 가리키는 동작으로, {앞}은 몸 앞쪽을 가리키는 동작으로, {방향}은 사방을 가리키는 동작으로 나타낸다(그림 5).



<그림 5> a. {향하다} b. {앞} c. {방향}

{가리키다}는 검지로 실제 존재하는 개체를 직접 가리킴으로써 표현한다. 단어가 가리키는 방향은 지시하는 대상의 실제 위치에 따라 결정된다. 사물을 명명하는 명사도 지표 기호로 만들어졌는데, {지붕}은 지붕을 가리키는 동작으로, {옷}은 옷을 잡아 보이는 동작으로 나타낸다(그림 6).

한 가지 언급할 것은 인칭대명사 {그}와 방향 단어 {지붕}의 경우 두 단어는 각각 남자와 집을 나타내는 도상 기호로 볼 수 있지만, 두 단어의 의미를 확정짓는 것은 남자와 집 자체가 아니라 그것을 지시하는 동작이기 때문에 지표 기호로 분류하였다는 점이다.



<그림 6> a. {가리키다} b. {지붕} c. {웃}

2) 지표-상징 기호

지표-상징 기호는 처음에는 지표 기호로 시작하였으나 시간이 흐르면서 현재는 상징 기호로 사용되는 단어들 또는 지표 기호와 상징 기호의 특징을 함께 갖고 있는 복합형의 단어들에 해당한다. 대표적인 예는 색채어를 들 수 있다. {검다}는 수화자의 머리를 쓰다듬어 검은 머리를 나타내고, {노랑}은 금니의 변색임을, {빨강}은 빨간 입술을 가리켜 나타낸다. 즉 {빨강}이 입술이라는 의미를 갖는다면 순수 지표 기호이지만 입술 자체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입술의 붉은 성질을 이용하여 빨강을 연상시키기 때문에 지표-상징 기호라고 볼 수 있다(그림 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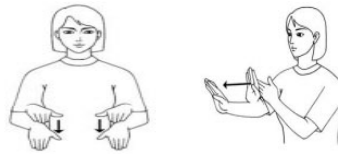
<그림 7> a. {검다} b. {노랑} c. {빨강}

{여러 가지}는 이것저것을 차례로 가리키는 동작을 통해 표현한다. {거짓}은 감춘 혀의 위치를 가리키는 동작으로 {무엇}은 어느 쪽인지를 묻는 동작/의문 표정으로 나타낸다. 이 단어들은 처음에는 구체적인 사물을 지시하다가 점차 어휘로 굳어진 것이다. 따라서 더 이상 개별적인 개체를 지시하지 않고 항상 동일한 형태를 가지고 동일한 의미를 표현한다(그림 8).



<그림 8> a. {여러 가지} b. {거짓} c. {무엇}

한국수화에서 시간을 나타내는 단어들은 일정한 수위에서 산출된다. 수화자의 신체를 기준으로 하여 수화자의 신체와 가까운 곳은 현재를, 수화자의 몸에서 앞을 향해 떨어진 장소는 미래를, 수화자의 몸에서 뒤를 향해 떨어진 장소는 과거를 표현한다. {오늘}은 수화자의 자리에서 과거와 미래의 중간 지점을 상징화하여 현재의 의미를 나타낸다. {나중}은 지금으로부터 그 다음을 나타내는 동작이다(그림 9).



<그림 9> a. {오늘} b. {나중}

### 3) 도상 기호

도상 기호는 지시체와 닮은 기호를 말한다. 단어는 사물의 형태와 사람의 행동을 모방하는데, 각각의 경우를 보도록 하자.

첫 번째, 사물의 형태를 모방하는 경우, 사물의 형태를 직접적으로 나타낼 때는 손이 사물 자체이거나 혹은 손으로 사물의 윤곽을 그려 표현한다. {네모}는 네모를 구성하는 동작으로, 양손 검지로 대칭적으로 네모의 윤곽을 그린다. {계양}은 기/올리는 동작으로, 깃발을 나타내는 평평한 손의 손목에 깃대를 나타내는 검지를 대고 평평한 손의 손목을 좌우로 흔들며 위로 이동한다. {언덕}은 산과 밋밋한 마루턱을 나타내는 동작으로서, 사물을 나타내는 수형과 윤곽을 동시에 표현한다(그림 10).



<그림 10> a. {네모} b. {계양} c. {언덕}

사물을 간접적으로 표현하기 위해서는 손은 사물을 취급하는 수형을 취한다. {나르다}는 잡아 옮기는 동작으로, {가방}은 가방을 들었다가 놓았다가 하는 동작으로, {열쇠}는 열쇠를 돌리는 동작으로 나타낸다(그림 11).



<그림 11> a. {나르다} b. {가방} c. {열쇠}

두 번째, 사람의 행동을 모방하는 경우는 거의 제스처에 가깝다. 예를 들어, {가렵다}는 몸을 긁는 동작으로, {거수경례}는 손을 들어 경례하는 동작으로, {검도}는 죽도(竹刀)로 내리치는 동작으로 나타낸다(그림 12).



<그림 12> a. {가렵다} b. {거수경례} c. {검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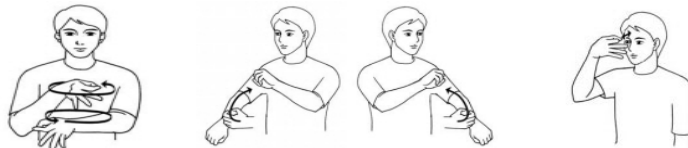
#### 4) 도상-상징 기호

도상-상징 기호는 단어의 형태가 일차적인 의미가 아닌 이차적인 의미를 가진 경우를 말한다. 단어의 형태는 사물의 형상 혹은 사람의 행위를 모방하지만 그것이 의미하는 바는 구체적인 사물이 아니고 추상적인 개념이다. 한국수화에서는 하나의 단어가 여러 의미를 가진 경우가 있다. 가령 {여우<sup>1</sup>}은 여우의 얼굴을 구성하여 돌리며 흘리는 동작으로 여우의 머리 부분을 형상화하였다. 이 단어는 {교활}로도 사용되는데, 여우는 교활하다는 이미지가 {교활}을 만들어 낸 것으로 보인다. 즉 {여우}는 여우의 독특한 외형을 표현한다는 점에서 도상 기호이지만 {교활}은 2차적인 의미를 가진 도상-상징 기호라고 할 수 있다. 다음으로 {관통}은 뚫어서 통하게 하는 동작으로 평평한 사물을 뚫은 사물이 뚫는 것을 형상화한 것이다. 이 단어는 {알아맞히다<sup>2</sup>}로도 사용된다. {관통}은 물리적인 1차적인 의미를 나타내지만 {알아맞히다<sup>2</sup>}는 숨기려던 것을 상대방이 알아차린 것으로 2차적인 의미를 가진다. 마지막으로 {가시}는 콧날을 따라 그리는 동작으로 나타내는데, 뚫은 것을 형상화하여 날카로움을 상징화하였다. 이 단어는 물리적 사물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예민하다}로도 사용되어 성격이 예민함을 뜻한다(그림 13).



<그림 13> a. {여우<sup>1</sup>} b. {관통} c. {가시}

다음의 단어들은 구체적인 내용을 통해 추상적인 의미를 표현한 경우이다. {경제}는 돈/돌아가는 동작으로 돈의 흐름을 나타내고, {적극}은 소매를 걷어붙이는 동작으로 나타낸다. {기술}은 머리에서 끄집어내는 동작으로서, 어원적 의미는 머리에 들어있는 노하우이다. 단어의 형태는 지시하는 현상과 닮았지만 추상적인 의미를 표현한다고 볼 수 있다(그림 14).



<그림 14> a. {경제} b. {적극} c. {기술}

### 5) 상징 기호

상징 기호는 약속을 통해 대상체와 자의적인 관계를 가진다. 예를 들어 {결과}는 문화적 배경 속에서 만들어진 단어인데 삽화를 형상화한 것으로 거북의 최종 승리를 상징화한 것이다. {결핍}은 양쪽 콧방울을 눌러 막았다가 한쪽을 터 주는 동작으로 찢다가 샘을 나타내는 것이다. {법}은 도구와 결정을 형상화하여 정해진 수단을 상징화한 것으로 {#수단(도구)/#정하다} 구조이다. 즉 {법}은 {수단}의 수형과 {결정하다}의 수동이 합쳐진 것으로, ‘수단을 정하다’, ‘정해진 도구’라는 함축된 의미가 하나의 단어로 표현된다(그림 1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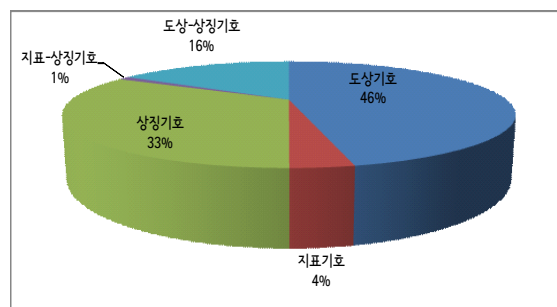


<그림 15> a. {결과} b. {결핍} c. {법}

한국수화 기호의 성격에 대해 전정례(2002: 300-301)는 수화를 신호(signal), 기호(sign), 상징(symbol) 중 기호, 즉 기호 체계로 정의 내릴 수 있다고 하였다. 그에 따르면, 신호는 어떤 반응을 야기하지만 의미 작용에 관한 어떠한 관계도 수행하지 않으므로 수화는 신호와 구별이 된다. 또 수화 기호는 상징으로 볼 수 없다. 기호는 기표와 기의로 이루어지는데, 둘은 수평적인 면에서 자의적인 관계를 가진다. 기표와 기의가 자의적인 관계를 흔히 상징이라 하는데, 한국수화는 손짓, 몸짓, 얼굴 표현이 그것이 나타내는 의미와 필연적인 관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상징으로 볼 수 없다는 것이다. 수화의 단어는 대상체와 유사한 형태를 가지지만 어떤 단어가 반드시 어떤 대상체와 결합해야 한다는 필연성은 없다. 이는 각국의 단어를 비교한 연구들에서 지지된다(Fischer, 2008). 또 도상 기호와 지표 기호가 상징 기호가 되는 예를 위에서 살펴본 결과, 수화의 단어는 처음에는 구체적인 형상으로 만들어졌지만 언어 사용자들에 의해 점차 다양한 맥락에서 사용되는 상징 기호가 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 6) 한국수화에서 도상 지표 상징 기호의 비율

<그림 16>은 한국수화의 단일어에서 도상 기호, 지표 기호, 상징 기호, 도상-상징 기호, 지표-상징 기호의 비율을 보여 주고 있다. 사전에 실린 총 2,674개의 단일어 중에서 도상 기호는 46%, 지표 기호는 4%, 상징 기호는 33%, 지표-상징 기호는 1%, 도상-상징 기호는 16%로 나타났다. 복합형인 도상-상징 기호와 지표-상징 기호를 상징 기호에 포함했을 때, 도상 기호와 지표 기호는 각각 46%와 4%로 전체에서 50%를 차지했고, 상징 기호는 50%를 차지했다. 지표-상징 기호와 도상-상징 기호는 더 이상 사물을 지시하지도 않고 사물과 닮은 성질이 의미와 직접적으로 연결되지 않아서 상징 기호에 포함된다고 할 수 있다.



<그림 16> 한국수화 단일어의 도상 지표 상징 기호의 비율

## IV. 논 의

본고는 한국수화 단일어의 분석을 통해 한국수화 기호의 특성을 밝히고자 하였다. 「한국수화사전」의 단일어 2,674개를 선정하여 퍼스의 기호 분류에 따라 이들을 도상 기호, 지표 기호, 상징 기호, 그리고 복합형인 지표-상징 기호, 도상-상징 기호로 분류하였다. 퍼스의 기호 삼분법에 두 개의 복합형을 추가한 것은 어원을 고려하면 단어가 만들어질 때는 지표 기호와 도상 기호로 시작하였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상징 기호로 발전한 단어들이 관찰되었기 때문이다. 어원을 토대로 하는 것의 이점은 현재의 형태에서 그 어원을 예측할 수 없는 단어들이 어떠한 배경 속에서 만들어졌는가를 살펴봄으로써 한국수화 단어의 생성적 특성을 선명하게 관찰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방식의 분석을 통해 단어가 만들어진 당시의 형태와 현재의 형태를 비교하여 시간에 따른 변화를 포착할 수 있다.

수화에서 도상적인 단어는 나라마다 비교적 비슷한 비율로 나타난다. 스위스-독일수화에서는 비수화자들이 단어의 도상성의 유무를 판단할 경우 도상적인 단어는 성인의 어휘 중에서 1/3~1/2를 차지했고 미국수화에서는 100개의 무작위 목록에서 1/3이 투명하다고 판단하였다(Boyes-Braem, 1986: 65-66). 인도-파키스탄수화에서는 어휘의 1/2 혹은 그 이상으로 보았다(Zeshan, 2002: 170). 이상의 연구들은 수화를 모르는 사람들이 판단한 결과로서, 단어의 의미를 알려 줄 경우에는 형태-의미의 관계를 지각할 수 있었다(Boyes-Braem, 1986: 66). 한국수화에서 도상 기호와 지표 기호의 비율은 전체의 1/2로 선행 연구들과 비슷한 결과를 보여 준다고 할 수 있다. 이 결과는 한국수화뿐만 아니라 각국의 수화가 도상적인 단어의 비율이 비교적 높은 편이며, 이는 시각언어인 수화의 보편적인 현상임을 말해 준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한국수화의 단어가 도상 기호와 지표 기호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도상 기호와 지표 기호의 성질을 유지한 채 상징 기호의 기능을 한다는 점이다. 다시 말해 한국수화에서 도상 기호와 지표 기호가 상징 기호로 생성되고 변형되는 역동적인 경향을 보여 준다는 사실은 매우 중요하다.

퍼스에 따르면, 상징은 ‘약속’, ‘계약’의 의미를 가진다. 여기에는 반드시 시간이 개입된다. 시간의 축적, 즉 연속성을 통해 도상적이고 지표적인 단어는 점차 일반성이 생기고 언어 공동체는 동일하게 인식한다. 수화는 지시체를 모방한 기호, 지시체를 직접적으로 지시하는 기호에서 출발하여 언어 사용자들의 사용을 통해 관습화되고 일반화된 상징 기호로 자라난다. 그러므로 수화 단어는 구체성에서 벗어나 일반성을 가지게 된다. 상징 기호로서 수화 단어는 단지 재발하고 복제될 뿐이다. 인간이 의사소통을 위해 사용하는 기호 체계에서 도상 기호와 지표 기호가 상징 기능을 수행한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한국수화 기호가 가지고 있는 도상적이고 지

표적인 특징은 기존의 연구자들에게 간과되었고 학문적 연구의 대상이 되지 못했으나, 사실 이는 제스처-시각적 언어인 수화만이 가질 수 있는 근본적인 특징이다.

## 참고문헌

- 국립국어원 한국표준수화규범 제정 추진위원회 (2007). **한국수화사전(개정판)**. 서울: 도서출판 사단법인 한국농아인협회.
- 김성도 (2006). **퍼스의 기호 사상: 찰스 샌더스 퍼스의 기호론과 현상론 선집**. 서울: 민음사.
- 김승국 (1983). 한국 수화의 심리언어학적 연구. 박사학위 논문, 성균관대학교 대학원.
- 김칠관 (1998). **한국수화 어원연구**. 인천성동학교.
- 장진권 (1995). 한국 수화의 어원적 의미. 석사학위 논문, 단국대학교 교육대학원.
- 전정례 (2002). 한국 수화의 언어학적 접근. **국어교육**, 109, 299-316.
- 한국표준수화규범 제정 추진위원회·한국농아인협회(2004). **한국수화 어원사전**. 서울: 한국농아인협회.
- Boyes-Braem, P. (1986). Two Aspects of Psycholinguistic Research: Iconicity and Temporal Structure. In Tervoort, B. (ed.), *Signs of Life: Proceedings of the Second European Congress on Sign Language Research*(pp. 65-74). 1986 Amsterdam : Institute of Linguistics, University of Amsterdam.
- Fischer, S. D. (2008). Sign language East and West. *Unity and Diversity of Languages* (pp. 3-15). John Benjamin Publishing Company. Piet van Sterkenburg.
- Mandel, M. (1977). Iconic devices in American Sign Language. In Friedman, L. A. (Ed.), *On the other hand: New perspectives on American Sign Language*(pp. 57-107). New York: Academic Press.
- Zeshan, U. (2002). Towards a notion of 'word' in sign languages. In Robert M. W. Dixon & Alexandra Y. Aikhenvald(eds.), *Word: A Cross-Linguistic Typology* (pp. 153-179).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 Zeshan, U. (2000). *Sign Language in Indo-Pakistan: A description of a Signed Language*. Philadelphia: John Benjamins Pub. Co.

## A Semiotic Characteristics on the Simple Words of Korean Sign Language

Nam, Ki Hyun

Korea Nazarene University

<Abstract>

The aim of this study is to take semiotical analysis on the property of signs in Korean Sign Language by analyzing simple signs of Korean Sign Language. Sign language, which imitates referred object and has many iconic signs referring objects directly, is not appropriately explained by the criterion of spoken language based on 'arbitrary' relation between signs and referents.

Thus it requires consideration based on semiotical theories through which both natural language and other semiotic systems can be analysed. When analysed by Peirce's sign classification, single words in Korean Sign Language's frozen lexicon has 50 percent of icon and index. Symbol accounts for the other 50 percent. This result corresponds with foreign previous studies and suggests that icon's high proportion in sign language is general property of visual language.

**Key Words :** Korean Sign Language, icon, index, symbol

---

논문 접수: 2012. 11. 05 심사 시작: 2012. 11. 13 게재 확정: 2012. 12. 20